

34. 전자부품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전자 부품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조OO은 OO(주) 1984년부터 기계유리보수 및 감독업무 등을 수행 하던 중 2007년 8월경 OO병원에서 폐암(선암)을 확진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OO(주)은 H-IC (hybride IC), LSI 등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계(sanyo) 사업장으로, 마산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해 있다. 조OO은 1984-1987년 까지 조립공정에서 와이어본딩기계 유지보수와 일선감독직을 하였다. 처음에는 기사로 입사하여 기계의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하였고, 1987년 이후에는 승진하여 주로 감독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1987.9.16-2003.10.5 까지 완성공정에서 감독업무와 솔더기계, 측정기계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였다. 감독업무는 근로자 인사관리와 작업의 진행 관리, 클레임 해결 등 현장에서 제품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3.10.6-2005.5.30 까지는 베트남에 파견되어 H-IC 생산 공정의 신설 감독업무를 하였다. 신설 후 1년 정도는 생산 감독 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 출퇴근시에 오토바이들이 많아 매연을 많이 마실 수 밖에 없었으며, 이것도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하였다. 2005년 6월부터는 한국으로 복귀하여 H-IC 조립공정 감독업무를 하였다고 하는데, 2005년 3월 경 회사 전체로 명예퇴직이 다수 있어 일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크레임이 많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귀국 후 설비의 정비(O/H, 오버홀)를 하여 다량의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며, 2005년 9월에는 세정기를 새로 도입하였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도중 다량의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고 한다. 2006.10월경에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2006.11.1 부터는 완성공정에서 동일한 감독업무를 하였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2007년 6월 건강검진에서 흉부엑스선사진 상 이상 소견이 있어 마산삼성병원에서 2007.8월 기관지내시경 등 정밀 검사를 받고 폐암(adenocarcinoma, T2N3M0)을 진단 받았다. 그 후 OO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 흡연은 1980년경부터 2007.8월까지 하였다고 하며, 하루 15개피 정도 흡연을 하였다고 한다. 음주는 주 2-3회 하였고,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였다고 한다.

4. 결론: 근로자 조OO은,

- ① 조사 결과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 물질을 찾을 수 없었고,
- ②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인 흡연 경력이 약 27년 정도 되므로,

근로자 조OO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을것으로 판단되었다.